

해남군, ESG 실천 사업 추진...지속가능 군정 실현

주민 참여...2022년부터 시행 회산면, 자연사박물관 등 4곳 재활용 제품 생산, 멘토링 등 5~11월 활동, 우수사례 공유

해남군이 올해 'ESG 실천 공모사업'에 회산면주민자치회 등 4개소를 선정하고 '해남형 ESG'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ESG 비전을 공유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해남형 ESG 실천 공모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심사를 거쳐 회산면주민자치회, 해남청년연합회,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초호 등 4개 단체를 선정, 각 1000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먼저회산면주민자치회는 '회산면에서 피어난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세대 간 협력이 가능한 주민 참여형 환경 보호 활동과 함께 사회적 농업 실천, 재활용 제품 생산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해남청년연합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진로 상담을 진행한다. 다양한 직종의 청년들이 참여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 지역발전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들의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친환경 그린 공작소를 운영하며 초등학교생들에게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쉬운 분리수거 실천법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호 단체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음료와 천연비누 제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조성한다.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원 순환의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며 향후 우수사례 책자를 제작해 각 단체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해남형 ESG가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ESG 가치를 군정 전반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인 ESG(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군정에 반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속 가능한 정책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대회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정원해설사 기초과정 26명 양성 신안군, 주민 역량 강화

신안군은 지난 19일 정원문화의 저변 확대와 전문해설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한 '정원해설사 양성교육(기초과정) 4기'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원해설사 교육 과정은 지난 2월15일부터 9주간 매주 토요일 6시간씩 총 54시간 운영됐으며 정원에 대한 이해와 해설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방식은 이론에 앞서 1004섬 신안의 정원 자원,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정원해설 스토리텔링 기법'과 '정원해설 실전 훈련' 등 실용적인 강의로 이어져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생은 신안군 관내 7개 읍면 주민을 비롯해 신안군으로 귀촌을 희망하는 타 시군 참여자까지 총 29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나 최종 출석률 70% 이상을 충족한 26명만이 수료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원해설사 양성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주민 스스로가 섬 정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해설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정원 중심의 지역 관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와 함께 정원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밀·보리 붉은곰팡이병 방제 당부 해남군, 4월 중~하순~5월 초

해남군이 4월 중·하순부터 5월 초까지를 붉은곰팡이병 중점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밀과 보리의 적기 방제 지도에 나서고 있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붉은곰팡이병은 맥류의 이삭이 나오는 시기부터 알곡이 차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온도가 15도 이상, 3일 이상 비가 올 경우 발생률이 높아진다. 특히 밀에서 발생률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병에 감염된 곡물은 낱알 껍질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점차 분홍색 곰팡이로 뒤덮이며 영양분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곰팡이가 분비하는 독소로 사람이나 동물이 먹게 되면 사람은 구토·설사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가축은 체중감소, 사료섭취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붉은곰팡이병 예방을 위해서는 포장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삭 패는 시기에 디페노코나졸, 캡탄수화제, 프로피코나졸 유제 등 등록된 약제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2~3회 예방 위주로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 친환경 농가는 석회유황 1000배액을 골고루 살포해 주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겨울과 올봄 저온으로 생육이 예년보다 보름가량 지연됐다"며 "4월 중하순 출수가 확인 후 15일 이내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무안군, 최대 350만원 지원

무안군은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 수행기관인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정소년복지시절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으로 총 60명을 선발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수 및 취·창업, 근속 등 목표 달성 시 최대 35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이용하거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안=김행연 기자



무안군 어르신들이 '3GO 운동교실'에 참여해 마사지 볼을 활용한 요가를 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월부터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3GO 운동교실을 운영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3GO 운동교실' 주민 호응 이어져

무안군이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한 '3GO(배우고, 운동하고, 실천하고) 운동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운동교실은 지난 2월18일부터 4월10일까지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총 15회 차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요가 수업을 통한 유연성과 근력 향상, 짐볼·매트·맨몸 운동, 마사지볼 활용 운동 등 전신 근력과 균형감각을 골고루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전·사후 체성분 분석과 혈압·혈당 측

정 등 건강 지표 계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신의 신체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관리의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성철 무안군 보건소장은 "이번 운동교실은 단순한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 스스로 건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강진서 초등생 쌀요리 교실 운영 전남농협, 쌀의 소중함 체험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강진 녹향월촌팜스테이마을에서 곡성 오산초등학교생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전남 초등학생 쌀요리 체험교실' 첫 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90분간 진행된 체험 교실에서는 꼬마김밥과 인절미, 쌀강정, 수제 식혜, 삼색경단·바람떡 등 다양한 쌀요리를 직접 만들어 나눠 먹으며 쌀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했다.

초등생 쌀 요리 체험교실은 지난 3월 초 학교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2주 만에 10개 학교에서 올해 목표로 한 250명을 초과한 260명이 접수해 조기에 신청이 마감됐다.

전남본부는 오는 11월까지 강진군과 곡성군에 소재한 팜스테이마을 두 곳에서 쌀 요리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남의 초등학생들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과 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4만3천명 발걸음...매출도 '쑥'

지난해 대비 방문객 6% 증가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에 4만3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20일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열린 축제는 전국 불안과 내수 부진, 경제불황 악재에도 전년보다 관광객이 6% 증가하며 관심을 받았다.

관광객들도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에서 찾아왔으며 축제에 마련된 강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강진만 노을장에서 일부 품목이 매진되며 성황을 이뤘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체험에 따른 매출액도 전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에서 오신 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강진군에서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가 열렸다. 강진군 제공

관광객들이 전라병영성축제를 즐기고 강진 반값여행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도 많이

구매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